

# 신용정보업 경쟁도 평가 결과 보고서

2022년 11월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회

##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위원장	전상경	한양대학교	교수
위원	오광욱	고려대학교	교수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여은정	중앙대학교	교수
	이기영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이수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효경	충남대학교	교수
	조성진	서울대학교	교수
	조혜진	인천대학교	교수
	최현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하정림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

## < 목 차 >

I.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 범위 .....	1
II. 신용정보업 현황 .....	2
1. 법적 환경 .....	2
2. (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 및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 .....	3
3. 신용정보업 현황 .....	4
4. 시사점 및 평가 .....	6
III. 신용정보업 경쟁상황 평가 .....	7
1. 시장집중도 평가 .....	7
2. 시사점 .....	8

## I.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 범위

- 양질의 데이터 보유기업 등의 CB진입 확대를 통한 CB산업의 전문성·경쟁도 강화와 쉐파일러의 금융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허가단위를 세분화
  - 2020년 2월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단일 라이선스였던 신용정보업을 개인CB, 비금융전문CB, 개인사업자CB 및 기업CB로 세분화
- 기존 CB 6개사\* 이외 신용정보법 개정 후 신규 CB 7개사 추가 진입
  - \* 나이스평가정보, KCB, SCI평가정보, KED, 나이스디앤비, 이크레더블
  - (비금융전문CB) 핀테크 기업 1개사(크레파스솔루션\*) 진입
    - \* 단말기 정보, 모바일 앱 활용 패턴, 통화·SMS 패턴 등을 활용
  - (개인사업자CB) 카드사 3개사(신한카드, 국민카드, 비씨카드(예비허가)), 소상공인 매출데이터 보유기업 1개사(한국신용데이터\*(예비허가)) 진입
    - \* 소상공인 매출관리 프로그램(앱) 제공업체 → 카카오뱅크 등 총 6개 금융회사 출자 예정
  - (기업정보조회업) 중소·중견기업 데이터 보유기업 1개 사(더존비즈온\*) 진입
    - \* 중소기업 세무·회계, 인사관리 등 기업용 소프트웨어(ERP) 제공 업체
  - (기술신용평가업) 특허 전문기업 1개사(한국기술신용평가\*) 진입
    - \* 위즈도메인(특허분석 관련 서비스 제공업체)과 4개 금융회사가 공동출자하여 설립
- 각 허가단위별 CB업 진입수요가 계속되고 있어, 신규 허가 신청에 대한 접수·심사 이전 허가원칙·방향을 마련할 필요
  - 허가 단위별 경쟁상황·이슈 등을 검토하여 허가 방향 마련
    - (개인CB) 개인정보 보호 문제, 일반 국민들에 대한 영향력, 현재 경쟁상황 및 비금융전문CB 활성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 (개인사업자CB) '21년 중 허가받은 개인사업자CB와 차별화된 데이터 보유기업에 대한 추가 허가 필요성
    - (기업CB) 개인CB 대비 기업CB 특성,\* 新산업·비상장·중소기업 등

광범위한 데이터 사각지대 존재 등을 감안한 추가 진입 및 진입  
규제 완화 필요성

- \* 개인CB와 비교시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거의 없으며 여타 직접적인 대국민  
영향력도 낮음

## II. 신용정보업 현황

### 1. 법적 환경

■ 신용정보업은 1995년 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신용정보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 현재 신용정보법 상 신용정보업은 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  
평가업, 기업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으로 구분<sup>1)</sup>

- \* 신용정보회사는 신용정보법에 대해 금융위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개인신용평가  
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조사회사로 구분

■ 신용정보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허가단위별로 출자자격 요건, 자본금요건  
등을 구분하여 규정함

〈표 1〉 신용정보업 면허 제도, 자본금 및 출자자격 요건

	허가단위		최소 자본금	금융회사 출자요건
기존	신용정보업(CB업 구분X)		50억원	적용(50% 이상)
개선	개인CB	개인CB	50억원	적용(50% 이상)
		비금융전문CB	5억원/20억원	비적용
	개인사업자CB		50억원	적용(50% 이상)
	기업 CB	정보조회업	5억원	비적용
		기업등급제공업	20억원	적용(50% 이상)
		기술신용평가업	20억원	적용(50% 이상)

1) 채권추심업은 신용정보업과 분리되어 신용정보법에 규정되어 있어 본 보고서의 논의에서는 제외함

## 2. (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 및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

■ 정부는 2018년 1월 평가의 정확성, 공정성을 제고하고, 평가과정에서 개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

- ① 평가의 정확성: 이용 금융업권에 따른 일괄평가를 제한하고, 신용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하며, 비금융정보 활용 방식을 개선
- ② 평가의 공정성: 연체정보의 등록기준 강화, 단기연체·상거래 연체 이력정보의 활용 제한, 장기연체 정보의 과도한 활용 제한 등
  - 단기연체의 경우 10만원 & 5영업일 이상 → 30만원 & 30일 이상, 장기연체의 경우 50만원 & 3개월이상 → 100만원 & 3개월 이상으로 완화
  - 단기연체 이력정보 활용기간을 축소(3년 → 1년)하고, 상거래 연체의 경우 이력정보 활용을 전면 제한
  - 금융회사의 ‘법원 채무불이행자 명부’ 활용 자제 유도
- ③ 평가의 투명성·책임성: 평가지표 공개 확대, 본인 평가결과에 대한 상세 설명 제공, 외부 독립위원회 설치, CB사 자체검증 내실화 등
- ④ 소비자보호: 중요사실의 통지의무를 강화하고, 정보주체가 적극적 대응권을 보장

■ 2018년 11월 정부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을 통해 신용정보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신용정보산업의 진입규제를 업무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

- 자영업자의 실시간 카드매출정보 등을 분석하여 663만명(당시추산)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사(CB사)」 도입
- 공공요금 납부정보, 온라인 쇼핑 정보, SNS 정보 등을 통해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비금융정보 전문 신용평가사(CB사)」가 도입
- 높은 진입규제로 역동성이 부족한 신용정보산업의 진입규제를 업무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

- CB업 허가 단위를 업무 실질에 따라 개인CB(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 CB, 기업CB(기업신용조회업)로 구분
- 업무내용이 다양한 기업CB업은 기업정보조회업, 기업신용등급제공업, 기술 신용평가업(TCB)으로 세분화
- 상대적으로 정보보호의 필요성이 낮은 기업CB업은 허가단위별 규제 필요성에 따라 자본금 요건을 합리적 완화
-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술신용평가업(TCB)의 경우 특허법인·회계법인 등의 신규 진입도 적극 유도
-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권에 공유되는 정보의 범위를 확충하고, 신용정보원을 데이터전문기관이자 금융권의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는 기관이 되도록 하는 등 신용정보 산업의 인프라를 정비

■ 2020년 신용정보법의 개정을 통해 진입규제 완화 등 그간의 정책 추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

- 신용정보업(CB:Credit Bureau)업을 개인CB, 개인사업자CB, 기업CB 등으로 구분하고 진입규제 요건이 합리적으로 완화

### 3. 신용정보업 현황

■ 현재 14개 신용정보회사가 개인, 비금융, 개인사업자, 정보조회, 기업등급 및 기술영업 등의 분야에서 영업 중

<표 2> 등록 CB사 업무 현황 (2022년 7월말 현재)

구분	업체명	개인	비금융	개인사업자	정보조회	기업등급	TCB
기존	나이스평가정보	○	○	○	○	○	○
	KCB	○	○	○	○	○	
	SCI평가정보	○	○	○	○	○	○
	KED	○	○	○	○	○	○
	이크레더블	○	○	○	○	○	○
	나이스디앤비		○	○	○	○	○
	신용보증기금			○	○	○	
신규	크레파스솔루션		○				
	신한카드			○			
	국민카드			○			
	BC카드			○			
	한국평가정보			○			
	더존비즈온				○		
	한국기술신용평가						○

자료: 금융위원회

■ 2019년중 신용조회회사(총 6개사\*)의 영업수익은 6,598억원으로 전년 대비 679억원(+11.5%) 증가

\*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 SCI평가정보, 이크레더블, 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기업데이터

- 2019년중 신용조회회사의 영업수익은 6,598억원, 당기순이익은 772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679억원(+11.5%), 37억원(+5.0%) 증가하였으며, 6개사 모두 당기순이익을 실현
- 2019년 중 신용조회회사의 영업실적이 양호한 것은 신용조회서비스 이용 고객의 확대, 기술신용평가(TCB) 관련 업무의 수익 증가 등에 주로 기인



〈표 3〉 신용조회회사 영업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영업수익	3,802	4,656	4,930	5,352	5,919	6,598
신용조회업	3,305	3,982	4,018	4,605	5,153	5,837
TCB업무	n.a.	n.a.	n.a.	539	676	770
신용조사업	146	145	150	123	150	112
겸업 등*	351	529	761	624	616	649
영업비용	3,442	4,109	4,219	4,604	5,003	5,483
영업이익	382	547	711	748	916	1,115
당기순이익	350	436	572	575	735	772

주) \* 신용평가모형 개발, 본인인증, 공공 목적의 조사·분석 업무 등

\*\* 2014년 이전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서 채권추심회사와 신용조회회사의 영업실적을 구분하지 않고 발표하여 제외

자료: 금융감독원, “’19년 신용정보회사 영업실적 [잠정],” 보도자료, 2020.4.3. 및

“’16년 신용정보회사 영업실적 [잠정],” 보도자료, 2017.3.28.

#### 4. 시사점 및 평가

■ 2020년 신용정보법을 개정을 통해 신용정보업 허가단위를 세분화한 것은 양질의 데이터 보유기업 등의 CB진입 확대를 통한 CB산업의 전문성 강화, 경쟁 제고 및 금융이력부족자(thin filer)가 금융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 비금융전문CB, 개인사업자CB 신설 등으로 금융이력부족자, 자영업자의 신용평가상 불이익이 해소되며 금융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 금융위는 이를 통해 신용평가를 위한 데이터가 확충되고, 전용 신용평가체계가 구축되면서 1,100만명의 청년·주부 등 금융이력부족자, 660만명의 자영업자의 신용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표

■ 특히 신용카드사에 대해 개인사업자CB업무의 겸영을 허가함으로써 신규 진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향후 이 분야의 경쟁이 유의미하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

- 아직 진입 초기인 만큼 향후 실적이 축적되어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해 봐야 할 것이나 물리적 경쟁자의 증가는 잠재적 경쟁도 상승의 효과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는 요소로 평가

### Ⅲ. 신용정보업 경쟁상황 평가

#### 1. 시장집중도 평가

■ CB산업은 시장집중도를 기준으로 볼 때 대체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는 시장이며, ‘매우 집중된 시장’으로 추정<sup>2)</sup>

- 총매출 기준으로 집중도를 보면 2012년~2022.3월까지 매년 시장점유율 1위 CB의 총매출액 비중이 50%를 초과하고,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75%를 초과<sup>3)</sup>
  - 또한 HHI도 2016년까지는 5,000을 상회하고 2017년부터 크게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000을 초과하는 수준을 계속 유지
- 신용조회에 관한 전체 매출의 경우 1개사가 5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보이지는 않고 있으나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 합이 78% 이상이며, HHI의 경우 2017년 이후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지난 10년간 최소 2,800 이상을 기록
- 기업CB업무의 경우 상위 1개사의 시장점유율이 50%를 초과하지는 않으나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75%를 초과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는 시장이며, HHI의 경우도 2018년을 제외하고는 2,500을 상회

국가	우리나라	미국
지표	CR	HHI
2) 기준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 CR1 ≥ 50% or CR3 ≥ 75%	HHI ≤ 1,500 : 집중되지 않은 시장 1,500 ≤ HHI ≤ 2,500 : 다소 집중된 시장 HHI > 2,500 : 매우 집중된 시장

3) CB사의 매출은 크게 신용조회, 컨설팅, 기타 업무(인증 등)에서 발생하며, 신용조회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함.

- 다만 기술CB의 경우 실질적으로 다수의 사업자에 의해 경쟁이 시작된 2018년 이후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HHI 기준으로 볼 경우 2018년 이후 2,100~2,300 범위를 유지하고 있어 '다소 집중된 시장'으로 추정
- 한편 개인CB의 경우 실질적으로 2개사가 시장을 양분한 가운데 CR1이 74% 이상이고 CR3는 100%이며, HHI의 경우 6,000을 초과

## 2. 시사점

- CB산업은 집중도 지표를 통해 살펴본 결과 대체로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는 업체에 의해 과점체제를 형성
  - 신용정보업 시장의 경우 다소 경쟁도가 낮은 것으로 보이며, 비교적 최근에 형성된 기술신용평가(TCB)의 경우 빠르게 집중도가 낮아지는 모습
- 다만 과점체제로 보이는 부문의 경우에도 최근 시장진입이 크게 증가한 업체의 실적이 반영되기에는 다소 이른 시기에 이루어진 평가 결과로서 신생업체의 경쟁력에 따라서 향후 시장체제는 다소 경쟁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